

가을 끝자리 화랑에 가면 열리는 눈과 마음

쌀쌀해진 날씨가 겨울을 재촉하는 이맘때쯤이면 화랑가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도 한결 뜰해지게 마련이지만, 요즘 화랑가는 생동감이 넘친다. 파격적인 불상 작품을 선보이는 안성근씨의 '전시중 전시중 戰時中 展示中'전, 불교 목조각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볼 수 있는 '목조각 전승전', 범주스님의 '달마선묵전', 퇴계탄신 500주년 기념 '퇴계 이황전' 등 다양한 전시회가 잇달아 열린다.

▲ '변상도전' = 국립중앙박물관은 11월 이달의 문화재로 변상도變相圖 세 점을 선정. 2층 로비에서 한 달간 전시한다. 고려시대 작품인 대방광보살화영경 제47권 변상도'를 비롯, 조선 태조의 셋째 아들 방의가 익안대군 시절 정혜종주의 함께 시주한 '묘법연화경 제5권 변상도', 화영경 행원동신중합부'가 선보인다. 02-398-5077

▲ '전시중·전시중전' = 불상과 화영경, 스님 등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을 선보여 온 작가 안성근씨의 전시다. 12월 9일까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도 인체는 불상 연작과 컴퓨터를 이용한 설치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02-720-1020

▲ '목조각장 전승전' = 제3회 목조각장 전승전이 30일까지 여주 목야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지정 5년을 맞은 박찬수씨의 '관세음보살좌상'을 비롯, 송근영씨(전통문화재조각

목조각장 전승전·달마선묵전·퇴계 이황전 등 열려

회 회장의 '석가모니불좌상' 등 4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031-885-9952
▲ '달마선묵전' = 달마선원 주지 범주스님의 '달마선묵전'은 30일까지 대구 영남대학 관음사에서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달마도를 비롯해 포대화상도, 산수도, 경명주사관음도, 한산습묵도 등 150여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053-472-6268



12월 대구 관음사에서 열린 '달마선묵전' 개관식에서 직접 달마도를 그려 보이고 있는 범주스님. 사진=대구 순법천 저사장

▲ '퇴계 이황전' = 12월 9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퇴계 이황'전은 조선시대 위대한 도학자 퇴계 이황(1501-1570)의 삶과 문호, 예술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퇴계 탄신 500주년을 겸한 이번 전시회에는 '유계(遺稿)', '계산잡영(溪山雜詠)', '도산십이곡(陶山十

二曲)', '계회시첩(梅村詩帖)' 등 100여점이 전시된다. 02-580-1513
▲ '풍경전' = 서울 신문로 성곡미술관이 마련한 김보중 초대전 '풍경'은 보잘것 없는 나무줄기, 풀썩이는 낙엽과 마른 흙바닥에서 움직이는 생명의 경이를 담은 전시다. 숲을 주제로 한 김씨의 최근 작품과 와선(臥線)하는 티베트불교의 이미지를 담은

90년대 작품 등 회화 설치 드로잉 작품 50여점이 선보인다. 30일까지. 02-737-7650

▲ '시간의 빛깔전' = 청주대 김택상 교수의 여덟 번째 개인전이다. 맑고 투명한 색채들이 조금씩 배어들고 번져나간 형상을 통해 감각적이면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추상화 1백 30점이 전시된다. 12월 13일까지 서울 청담동 카이스갤러리에서 열린다. 02-511-0668

이은자 기자 ees@buddhista.com



김훈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창문 밖 벽을 타고 올라가면 땀방울이 떨어지는 마른 잎이 그려놓은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난히 쌀쌀하게 들렸던 그 잎들은 이제 시들어 말라가고 있고, 일부는 벌써 땅에 떨어져 제법 쌓이기 시작했다. 계절은 담벼락이라는 화폭 위에 그렇게 자연의 그림을 그리고 지우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같다.

보르헤스는 세계를 한 권의 책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 책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썼다가 지우고 그 위에 다시 쓰기를 계속하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영원한 미정고(未定稿)이다. 그는 자신의 이런 생각을 <베르테르네르, '돈 키호테'의 저자'라는 단편소설을 통해 그려보았다. 여기서 등장하는 베르테르네르라는 프랑스 상징주의 작가는 보르헤스가 꾸며낸 가상의 인물이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다.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베르테르네르의 가장 중요한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은 <돈 키호테'라고 한다. 그는 이 작품을 쓰기 위하여 일생을 바쳤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작품과 다른 <돈 키호테'를 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원전과 완전히 일치하는 작품을 집필하려고 하였다. 17세기 스페인

보르헤스의 문학세계 (4)

시대 흐름따라 고정관념 탈피 모든 사고 재해석

사람인 세르반테스가 당대의 모국어인 <돈 키호테'를 쓰는 것은 전혀 어울리는 일이 아니었지만, 20세기 프랑스 사람인 베르테르네르의 입장에서 고어체 외국어로 <돈 키호테'를 다시 쓴다는 과정은 너무도 어려웠다. 세르반테스 사후 300여 년에 걸쳐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과 정보들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다시 쓴 베르테르네르의 <돈 키호테'는 -비록 그 내용은 원작과 똑같지만- 세르반테스의 작품보다 훨씬 더 요묘하고 풍요로운 의미를 담고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 베르테르네르의 결구 자신의 혼이 담긴 그 원고를 찾아 볼 수 없었다.

보르헤스는 베르테르네르의 작품을 읽종의 '양피지사본(palmipes)'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종이 가 귀하면 시절엔 양피지 위에 한 번 썼던 내용을 지우고 다시 쓰는 일이 흔했다. 말하자면, 하나의 철학적 종교적 이론은 처음엔 절대적으로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결국 희석화되어 시대에 따라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보르헤스는 모든 경전들도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는 양피지사본이라고 봄으로써, 맹목적인 이데올로기나 혹은 한 가지의 오류도 없다는 도그마에 속박되는 인간정신을 해방시키고자 했다.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면서 강요되는 수많은 이념적 폭력을 앞에서, 모든 경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거의 고정관념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보르헤스의 풍자는 권위의 걸림돌을 치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마음에 위안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보면 자성(自性)이 없는 자연과 인간도 결국 하나의 양피지사본이 아닌가? 불교의 무아(無我) 사상과 특히 "정신을 속박하여 자유를 가로막는다면 부처님과 조사들마저도 배어버린다"는 임제 선사의 치열한 '살불살조(殺佛殺祖)' 정신을 대하고 보르헤스가 크게 감동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보르헤스가 파악한 불교의 핵심은 '자유'이다.

■문학평론가

교계 첫 불교만화 공모전

12월 1일~내년 1월 20일

만화는 이제 더 이상 일부 마니아 계층의 문화가 아니다. 이미 인터넷과 캐릭터, 홍보 사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만화를 불교 포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도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사이드스코프에서 개발한 '동방지국산' 캐릭터.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개원한 불교만화연구소가 새로운 포교문화의 장을 열 교계 최초의 불교만화 공모전을 연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제1회 불교만화 공모전은 미래불교의 희망인 청소년 불자들이 즐겁고 창의적으로 불교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교적 소재가 담긴 모든 장르의 만화로 단편, 네컷 만화, 일러스트, 만평 등 장르와 편수의 제한은 없다. 공모기간은 12월 1일~2002년 1월 20일이다. 신청서는 불교만화홈페이지(www.okbuddha.com)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053-474-8228 이은자 기자

주제가 있는 여행으로 초대

관광공사 '가볼만한 곳 100선' 펴내

한국관광공사는 내국인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후원 <2001년 가볼만한 곳 100선> 책자 5,000부를 발간했다. 이 책은 지난해 <2000년 가볼만한 곳 100선>에 연이은 시리즈로서 2000년 중 추천한 관광지들 중심으로 새로운 열별 테마여행지 100곳을 선정, 국내외 여러 숨겨진 명소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겨울 배낭여행 코스로 적합한 장곡사와 수역사, 강진 백련사, 화순 운주사 등을 꼽았고, 단풍철 유적 답사지로는 고성 건봉사, 철보산 각연사, 천태산 영국사, 호구산 용국사, 영광 불갑사, 서운산 석남사 등을 선정했다. 또 전통마을 탐방 코스, 장터기행, 꽃나들이, 숲나들이, 그리고 연말에 가볼 만한 추억의 일일명소 등 월별로 특색 있는 주제 아래 교통, 숙박 정보 등을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관광공사가 단풍철 유적답사지로 추천한 건봉사.

불교음악 창작곡 발표회



이런 공연은 삼보불교음악협회가 창작 찬불가 연구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수행의 노래-오페라 아미타불 중', '사은

우리 찬불가를 창작 보급해 준 중앙대 음대 정부기 교수(사진)의 '불교음악 창작곡 발표회'가 26일 오후 7시 30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린다.

문학소식

가', '니르바나의 노래', '혼자 있을 때' 등 정교수가 작곡한 찬불가 20여곡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교계 합창단에서 지휘자와 단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황민정, 연정숙, 바리톤 박성규, 김성규 씨 등 불자 성악인 7인이 출연해 노래한다. 이외에도 가톨릭가합창단이 '찬불가', '무명을 밝히고' 등의 합창곡을 연주한다. 02-532-6584

정재만 교수 승무 공연

우리 전통 춤의 맥을 잇고 있는 승명여대 정재만 교수가 22일 오후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정재만 전통춤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정교수의 승무예능보유자 지정 1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로 승무와 학춤, 살풀이춤, 태평무를 비롯한 전통춤이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 정교수는 승무를 11명의 무용수와 함께 군무로 재구성해 선보일 예정이다. 02-516-1540

마음 밝히는 책 3

승산 스님의 가르침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께 재를 털면 ?

승산 행원 선사(崇山 行願 禪師)

승산 큰스님은 1907년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나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득도하여 수덕사 교봉 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마곡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재무부장 등을 지냈다. 1967년 일본에 출법한 개성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등에 출법권을 재성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승산 큰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겸 조실로 있다.

승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나가는 큰 의심덩어리!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훑 볼 때, 내가 만일 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995, 737-8881 팩스: 737-0997

부처님께 재를 털면

